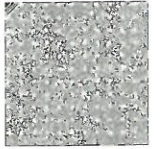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95호 2022년 5월 22일(다해)

부활 제6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5,1-2.22-29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레들을 이끄시니, 거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묵시 21,10-14.22-23<또는 22,12-14.16-17.2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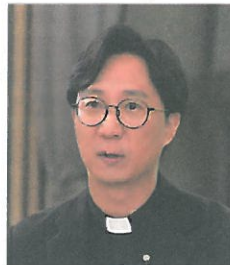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요한 14,23ㄴ-29<또는 17,20-26>

영성체송 |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보도주간

그때 그 순간, 예수님 마음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는 시험이나 리포트, 일을 하는 분에게는 업무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주부님들에게는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한다는 것이, 늘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강도의 스트레스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합니다. 아쉽고 그리운 감정,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들이닥친 이별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난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이 임박한 때, 사도들과 이별 인사를 나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참으로 특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양성 받는 제자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느님 말씀을 함께 전했던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함께 고생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아쉬움 말고도 '과연 이 제자들이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하며 불안하고 걱정도 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의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있기에, 헤어질 것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홀로 이별을 준비하는 예수님 마음은 더욱 쓸쓸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속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하늘나라에 대해 더욱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성부·성자·성령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알려주시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는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들을 도와줄 보호자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 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부활 제6주일 수난 전에 남기신 예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 이별 이후를 위해 마련해두신 주님 마음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자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성부께서 내 마음에 머무시도록,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다가오는 한주, 성부·성자·성령의 하느님께서 고단한 내 삶에 희망을 비춰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사도들을 향했던 주님의 마음을 되새겨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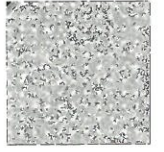
서소문성지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3)

서소문 순교성지 내 103위 성인을 위무한 작품 속에는 순교하신 성인들의 한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와 모든 이에게 당신 안에서 하느님과 당신이 이루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홍진호 제노 | 첼리스트

코라디노(Coradino) 신부님

제가 6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했던 독일의 뷔르츠부르크(Würzburg)라는 도시는 독일 낭만 가도의 시작이자 현지인들에게는 숨은 보석이라 불릴 만큼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고향이 돼 버린 추억의 그곳을 떠올려 보면, 뻗속 깊이 파고드는 독일의 추위 속에서 집을 구하느라 꽤 긴 시간을 전전공공하며 보냈던 시간이 안쓰럽게 다가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찾아가도 수입이 없는 가난한 유학생에게 흔쾌히 집을 주려고 하지 않는 데다가 언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국인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겠다는 저의 야심찬 결심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더 쉽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기숙사에 있는 게스트룸을 간신히 얻어서 어학원을 다녔는데, 화장실도 없는 숙소였기에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면 친구들의 첫 인사말이 늘 “집은 구했어?”였을 만큼 이상하리만치 집을 구하는데 남들보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학원 친구였던 이탈리아에서 온 ‘코라디노’가 본인과 동료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원에 함께 가자고 해서 난생처음으로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던 저는 살짝 귀찮았지만, 친구의 간곡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건물은 많이 낡았지만 커다란 나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갔던 수도원의 공기는 무척이나 따듯했습니다. ‘코라디노’는 저를 거실 의자에 앉히고 잠시 사라지더니 처음 뵈는 신부님들, 수녀님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고 저에게 다가와 “오늘은 너를 위한 날이야!”라는 한마디와 함께 갑자기 제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 외마디 탄성

과 함께 저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간 집을 구하느라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보상이라도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따듯한 코코아와 수도원에서 직접 구운 쿠키까지, 이날의 모든 것은 친구의 말대로 저를 위한 것들이었고 ‘코라디노’가 선물해준 그날은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선 음악이 메마른 영혼에 얼마나 큰 빛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고, 긴 시간 방황하던 저의 종교적 신념을 바로 잡아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던 어학원 친구 코라디노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가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메일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는 그의 따듯한 마음은 오늘날까지 저에게 삶의 이유와 방향을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노래는 여전히 제게 가장 감동적인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태양의 찬가>

한껏 묵상



다
가
다
너의 영혼을
너희에게 준다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8

가톨릭교회는 왜 마리아를 공경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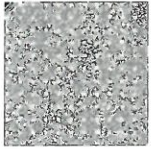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가톨릭교회에는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 얻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을 교리란 신자로서 무조건 믿어야 할 교리로 주로 '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킬 계명이란 구약의 십계명, 교회가 정하고 가르치는 계명들입니다. 은총 얻는 방법은 기도, 성사, 선행실천 등입니다. 믿을 교리는 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해당되는 내용 이외에, 성모님에 관련된 4대 믿을 교리(천주의 모친, 평생 동정, 무염시태, 성모승천)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가톨릭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오직 하느님께만 흠숭을 바치고(흠숭지례), 모든 성인성녀들에게 공경을 바치고(공경지례), 성모님께서는 성인들에게 바치는 공경보다는 높은 차원의 공경을 바치도록(상경지례) 가르칩니다. 성모님은 매우 특별한 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신학자들은 마리아를 '공동 구속주(救贖主)' (=공동 구세주) 내지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 표현하고, 이를 믿을 교리로 정해주도록 청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초세기 교회의 교부 중 성모님을 '공동 구속주'로 표현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속주'로서 마리아의 역할은 하느님의 역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마리아의 중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에 종속된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공식 가르침입니다. (참조 「교회헌장」 60항)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중재는 '참여적 중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하느님의 어머니'이고 '교회의 전형'(典範)입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느님, 성부와 동일한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교회의 전형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루는 완전한 일치의 영역에서 천주의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전형이시다." (「교회헌장」 6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론이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이고, 이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바람직한 신심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27)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숨을 거두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며 이 말씀을 남기셨고, 그때부터 그 제자는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자에게 부탁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모님은 어머니이십니다. 동시에 성모님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사랑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참된 성모 신심은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통해 성자께서 옳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헌장」 66항 참조)



시노드 제안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경청의 신비!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우리 서울대교구는 지금 교구 문서 종합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인 시노드 과정은 해당 단계의 시노드 대의원(단체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자)을 선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의안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노드에서 우리 교구는 직접 하느님 백성으로부터 시노드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전체 하느님 백성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시노드 교회의 핵심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시노드 제안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로써, 서울대교구는 교구 문서 종합 과정을 통해 시노드 전체 과정 중 교구 단계의 두 번째 단계인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a pre-synodal meeting)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구 단계 소그룹 모임과 개별 제안에서 논의된 시노드 의견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경청의 신비'라 하겠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핵심은 '경청'이었습니다. 모든 시노드 의견의 제안은 경청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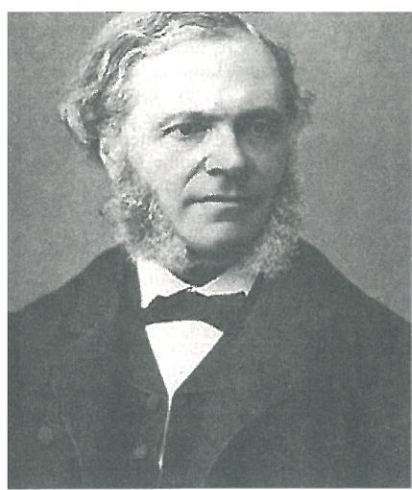
경청을 통해 드러난 시노드 의견의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함께해 주셨고, 시노드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시키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을 통해서 교회의 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선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말할 수 있었고, 겸손하게 경청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서로 존중하는 소통이 부족하였고, 따뜻하게 환대하지 못하였으며, 성직주의로 표현되는 독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이웃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그간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경험을 치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들의 경험을 경청하여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아가 시노드 참가자들은 경청을 통해 하느님과의 친교가 신앙의 본질이며 이 친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한 희망은 더욱더 하느님과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희망하며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경, 성사, 전례에 관한 신앙 교육과 세상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청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번째로 하느님 자녀라는 정체성의 인식은 교회가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게 이끌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젊은이들, 가난한 이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음에, 만남과 경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시노드 여정이 교회 안에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교구 종합 문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주교시노드 정기회의에 기여하고, 이번 시노드 교구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시노드의 결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구가 이해한 성령의 요청을 표현할 것입니다. 시노드 종합 문서를 통해 성령의 은총 가득한 교구 단계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자르 프랑크(1822~1890, 벨기에)

불후의 명곡이 된 선배의 결혼 선물,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미사 중 영성체 때 자주 듣고 부르는 성가 <생명의 양식 Panis Angelicus>의 작곡가를 기억하시는지요? 올해 탄생 200주년인 벨기에의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César Franck, 1822~1890)입니다. 그는 쇼팽과 리스트가 인정할 정도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생명의 양식>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대표 작품으로는 <교향곡 라단조>와 오르간곡인 <코랄(Chorale) 제3번 가단조> 등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인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가 있지요.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탄생 배경에는 그의 고향 후배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외젠 이자이(Eugene-Auguste Ysaÿe, 1858~1931, 벨기에)가 있습니다. 1886년 9월, 프랑크는 결혼하는 36년 아래의 이자이에게 축하의 의미로 곡을 써서 악보를 선물로 보냅니다. 이자이는 결혼식 날 하객 앞에서 이 곡을 처음 연주하고, 이후 40여 년간 자주 연주함으로써 오늘날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소나타의 하나로 만들었죠.

세자르 프랑크는 벨기에 출신이지만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음악, 특히 바이올린 소나타엔 프랑스적인 기품과 섬세함, 명상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일계 혈통을 받고 태어난 데다 음악적으로 바흐를 본받으려 했던 만큼 대위법적인 요소도 보입니다. 이 곡에는 그의 음악적 특징의 하나인 '순환 형식'이 들어있는데, 이는 앞 악장에 나온 동기나 주제들을 뒤 악장에도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을 꾀하는 작곡 기법을 말

합니다. 프랑크는 자신의 소나타를 전형적인 3악장 구성으로 만들지 않고 4악장으로 만들었는데, 각 악장에 대해 이런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곡의 각 악장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제1악장은 젊은 커플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을, 제2악장은 뜨거운 감정의 폭발을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교차 연주를 통해 표현하고, 제3악장은 사랑의 속삭임을 노래했고, 제4악장에서는 마침내 결혼에 이른 사랑스러운 커플의 환상을 카논(canon)으로 표현했다.”

프랑크는 살아생전 작곡가보다는 피아니스트, 오르간 연주자, 음악 교육자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따랐던 뒤파르크, 댕디, 쇼송, 피에르네 등 여러 작곡가들은 자발적으로 '프랑키스트'라는 그룹을 만들어 스승의 정신을 받들었고, 프랑스 근대음악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스승이었던지를 알 수 있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히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새신랑 이자이에게 대선배 프랑크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통해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싶었는지,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가(A)장조>
바이올린: 정경화
피아노: 케빈 케너

프랑크 <생명의 양식>
노래: 루치아노 파바로티 & 윈즈웬스 학교 소년합창단

찬미받으소서 7주년 편

#기후변화 #생태영성학교 #LaudatoSi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5월 24일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반포하신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칙 반포 5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 5월 24일부터 한 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지냈고, 이어서 작년 2021년 5월 24일부터는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우리의 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과 채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KBS에서 방영한 8부작 다큐멘터리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의 2부 「지구, 우리 모두의 집」(2021년 7월 15일 방영)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며 그 뜻을 새겨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30여 분으로 편집한 버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KBS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는 VOD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생태영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로 끝난 제40기까지는 줌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20년 제37기 생태영성학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누구나 가톨릭 생태 영성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 진행할 제41기는 예전처럼 대면 강의로 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구 사목국에서도 올해 구역반장 윌레연수를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따라 ‘생태적 회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강의 영상만 소개해 드렸네요. 지난 2020년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발표된 생활 성가로 『찬미받으소서』에 대해 노래한 영상 두 가지도 추천합니다. 국내에서는 ‘열일곱이다’에서 회칙과 같은 제목을 붙인 성가 ‘찬미받으소서’의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었지요.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을 쉽게 풀어 노래한 곡입니다. 또 작은형제회 마누엘 신부님이 멋지게 랩으로 표현한 ‘Laudato si Revolution(라우다토 시 레볼루션, 영문 자막 제공)’도 추천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7주년을 맞아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어제까지 오지 않아요



→ KBS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 2회 30분 편집 영상



→ 열일곱이다,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Revolution' Rap song ←



[생태영성학교] ← 전문가가 들려주는 환경이야기 재생목록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최연준 신부	해외유학	용산 본당 부주임
엄익재 신부	용산 본당 보좌	휴양

2022년 제17회 '교육 주간' 안내

2022년 교육 주간은 5월 23일(월)~29일(주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육 주간' 담

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 23일 이영일 베네딕토 신부(28세)
- 1979년 5월 25일 박일규 안드레아 신부(82세)
- 1984년 5월 27일 이선표 요셉 신부(37세)
- 1993년 5월 29일 김창석 타대오 신부(67세)
- 2005년 5월 27일 이봉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1세)
- 2020년 5월 24일 최선용 야고보 신부(77세)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청년생활성가밴드 '유빌라떼' 단원 모집

모집 분야: 보컬, 드럼, 키보드, 기타, 베이스
지원문의: 02)762-5071, 2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청년들을 위한 '하쿠나 성시간' 초대

성체조배를 통해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다양한 성가와 청년들의 신앙고백으로 이어지는 '하쿠나 성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 매월 두번째 · 네번째(금) 19시30분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희
 문의: 02)777-8249 대학교사목부

미혼부모기금 후원 감사미사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캠페인과 함께 시작한 미혼부모기금위원회가 후원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생명존중을 위한 사랑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후원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미사 집전: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생명위원회 위원장)
 때: 5월25일(수) 오전 10시30분
 곳: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문의: 02)727-2367 생명위원회 미혼부모기금

사목국 여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여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모집과정: 온라인-2022년 여성심리 아카데미(여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여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 대면-가톨릭여성심리 치유와 봉사 수료과정(기본과정) 상세안내 홈페이지 참조 /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향심기도 월파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만원
 곳: 영성센터 B201호(구.계성여고)
 지도: 이승구 신부 / 회비: 1만원

직장인	6월5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6월6일(월) 13시30분~16시30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5월23일(월) 10시30분, 양천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5월26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환경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283

서울대교구 화상수업

주제: 내안에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
 때: 5월31일~8월30일 매주(화)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중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6월2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2022 빈민사목위원회와 공단기가 함께하는

'함께 꾸는 꿈(CUM) 희망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대상: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 · 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등 / 교육과정: '공단지' 공무원 전직렬 온라인 강의 지원
 신청기간: 4월18일~5월31일 / 문의: 02)777-7261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내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19차 미사 5월2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흥남, 함흥 본당
 때, 곳: 1320차 미사 5월3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북청, 성진 본당
 미사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내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우니타스 성가대 단원모집 / 문의: 02)753-0815
 민족의 화해와 일치, 복내의 57개 본당을 기억하며 드리는 미사에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 60세 미만(상시모집)
 미사: 매주(화) 19시, 명동대성당 / 연습일: 매주(화) 미사 전

3) 우니타스 앤젤스 합창단원 추가 모집 / 문의: 02)753-0815
 노래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어린이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초2~초5 어린이(종교 무관, 상시 모집)
 오디션: 자유곡 1곡 / 연습일 · 장소: 매주(토) 10시~13시,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명동)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박해룡 개인전: 1, 2전시실
 업소영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25일(수)~30일(월)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 신자 교리

대상: 본당에서 부득이하게 정규 예비 신자 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인, 본 교육은 서울대교구 본당에 한함, 본당신부님 승인 필수
 강의: 6개월(온라인 교리) / 신청: 매월 1일 개강, 매월 20일 신청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
 회비: 1만5천원 / 자세한 사항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 신자 교리' 참조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신자앱'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본당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차세대 본당양업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새로운 양업시스템에 맞춰 교우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칭 '가톨릭신자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자앱'을 통해 기도 생활, 성지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톨릭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도 헌금과 교구금을 봉헌하고, 미사 지향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우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인 '가톨릭신자앱'. 이 '가톨릭신자앱'에 교우 여러분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 기간: 5월15일~6월5일 / 선정 인원 및 상금: 1인 30만원
 참가방법: 굿뉴스 홈페이지 홍보마당 -> 홍보게시판에서 참가(<http://code.catholic.kr/MXo3im>)
 문의: 02)2269-0419(내선 3번) 전산정보실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2일(월)~27일(금)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별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신부와 함께 하는 청년모임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 / 기도, 토론, 나눔, 친교
문의: 010-5597-8431 도미니코 수도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서울 노들담 교육관 피정 및 대관

1일 피정: 5월28일, 6월4일, 6월18일, 6월25일
통독: 매주(월) 10시, 19시 / 문의: 010-3590-6319 담당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6월1일~30일 / 문의: 010-8874-7970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5월24일(화) 12시10분(성시간강의)~14시50분(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1)707-4450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3호

사랑의 씨튼 수녀회 '씨튼 3040 피정' / 문의: 041)733-2992

대상: 30대~40대 남녀 젊은이 / 회비: 3만원
때, 곳: 6월5일(일)~6일(월), 씨튼 영성의 집(논산)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심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5월30일~6월1일, 6월4일~6일, 6월13일~15일,
7월3일~5일, 7월8일~10일, 7월23일~25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3차	6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4차	7월15일(금)~23일(토)	010-3540-9001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 교육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치유 피정	6월16일~30일 매주(토) 10시~13시
음악심리상담사	6월14일~28일 매주(목) 13시30분~16시30분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6월12일~15일(추자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수도 자유 일정)	6월20일~22일, 7월21일~23일, 7월30일~8월2일, 8월6일~9일, 8월12일~15일

첫 토요일 신심 피정 / 문의: 031)952-6324

때: 6월4일(토) 10시~14시(미사) / 중식 제공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주최) / 지도: 이한택 주교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5월27일~29일·6월24일~26일(2박3일), 명상의 집(우이동) / 개인 피정(수시),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침묵·대월기도 영성수련

때: 2박3일 5월27일(금)~29일(일)·6월10일(금)~12일(일)·6월24일(금)~26일(일)·7월8일(금)~10일(일)
곳: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32)465-0835
홈페이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혼인재발견(르트루바이) 주말 / 문의: 02)929-2141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박3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 곳: 6월3일~5일, 성 앙베르 센터(서울)

대구대교구 성지17순례·왜관수도원(전례·탐방)

때, 곳: 6월11일~13일·8월20일~22일·10월 마감·11월11일~15일(울릉도·독도 포함)·12월3일~5일, 왜관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10-3807-1784
출발: 서울(대형버스) 매회 30명 이내

젊은이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새신봉사회 루하)

매주 금요일 저녁,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기도회와 미사로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새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예수회 청년센터 젊은이 침묵 피정

내용: 침묵 피정 속 개인 기도과 개별 면담
동반: 이혼관 신부(예수회), 청년 동반자들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 회비: 일반 6만원(학생 4만원)
때, 곳: 6월4일(토)~5일(일) 1박2일, 천주교 예수회센터(마포구 신수동) / 인스타그램: @magis_kr
접수: 마지스 청년센터 문의(구글 링크를 통한 신청)
문의: 02)3276-7706(magis.kr@gmail.com)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성경 완독	6월10일(금)~18일(토) / 문의: 010-3340-0201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피정 (풍수원 옛골소길 순례)	6월24일(금)~26일(일) 문의: 010-9715-1203 회비: 1만원 / 선착순 30명

가정선교회 6월 행사

미사, 식수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5674-8511,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6월1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첫 토요일 신심미사	6월4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교육

미사반주자 교육

곳: 천호동성당 내
문의: 010-3203-8183 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

수제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초중고졸 검정고시·성인학력인정 초등중학 모집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반 / 한글·영어반 모집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오르프'와 함께하는 씬,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 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5월24일~6월14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2022년 춘계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영유아 교육분과 세미나

주제: 영유아 삶의 복음화 / 축사: 유경춘 주교
때, 곳: 5월25일(수) 14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참석자분들께 기념품 증정합니다
문의: 010-6209-6593 전중정

모집

수아비스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오디션: 매주(월) 연습(19시30분~21시30분) 전 자유곡 1곡 / 문의: 010-7151-9831 단장
곳: 공간음악(전철 7호선 장승배기역)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레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5월25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5월27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천주교서울구제선교회 월레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5월30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5월22일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웅기장학회 월레미사

때, 곳: 5월2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오형훈 신부, 박신언 문시놀(운영위원장)
공동집전 / 강론: 김평만 신부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525 사무국

5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5월25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복자 윤지총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미사
 때, 곳: 5월28일(토) 오전 11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주제: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공동집전: 염수정 추기경, 손희송 총대리주교(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교구 사제단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인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국내임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성라파엘상담소

심리적 어려움(분노·우울·불안·부작용),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상담지원(예산소진시 마감) / 석사 이상의 전문상담사 진행
 때: (월~일) / 문의: 070-4248-7573, 010-3008-4627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유희파에서 보는 꿈과 내적치유: 6월7일·6월14일·6월21일 (화) 14시30분~16시30분(3주)
 강사: 김영희(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유희파분석가)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성분도 은혜의 뜰

내용: 열린카페, 청년들을 위한 오픈 공간, 대관 이용시간: (월~금) 10시~17시·청년들 대상 (금) 18시~21시
 강좌: '청년들을 위한 생명 지킴 안내서' 강의·나눔
 첫째·셋째주(금) 모임 / 문의: 02)318-2425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 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싱,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릿갈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4월~5월(두 달)동안 7월~8월 성수기 예약시 15% 할인 적용 /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유관단체 일람

한민족동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제: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5월31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조리원 /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가톨릭회관 직원 모집

분야: 경비직, 미화직/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6월3일까지 우편(서울시 중구 명동길80 가톨릭회관 3층 관리실) 및 이메일(c-center@catholic.or.kr)접수

한국가톨릭민목자협회 행정직원 모집 / 문의: 02)2258-7972

대상: 세례받은 대졸자 이상, 컴퓨터활용 가능한 자
 인원: 계약직 1명 / 서류(자유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5월25일까지 이메일(ahck2016@naver.com) 접수

신대방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825-2314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근무: 주당 32시간(주4일) / 6월7일(화)까지 방문·우편(우 0706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11길 14 사무실)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신정3동성당 주방근무자(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5월27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접수
 마감일 이전 채용 가능 / 문의: 02)2060-8051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선교사 교육 운영 및 사무행정·회계(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근무기간: 6월~2023년 11월(18개월)
 대상: 견진을 받은 교우로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5월22일(일) 18시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742-9473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 6월5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월29일(일) 오전 9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의방선교회	6월5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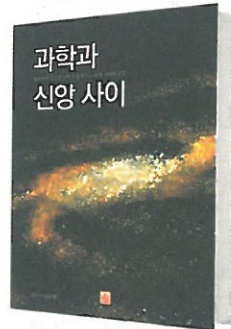


신간

일곱 봉인의 비밀

배은주 지음
분도출판사 | 128쪽 | 1만2천원
문의: 02)2266-3605

요한묵시록은 초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책이다. 이 책은 묵시록의 전체적 맥락을 간과하지 않되, 일곱 봉인이 담겨 있는 중심 환시 부분(묵시 4:1-22:5)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묵시록 이해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한다.



신간

과학과 신앙 사이

김도현 지음
생활성서사 | 168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카이스트 출신 이론 물리학자이자 예수회원으로 서강대학교 교수 신부이기도 한 저자가 과학과 신앙 사이를 오가며 현대 무신론을 이끄는 과학만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설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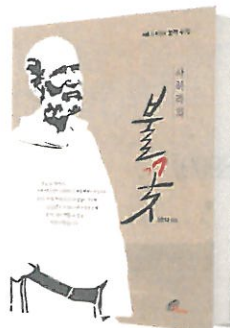


신간

위로의 약국

안셀름 그륀-안스가르 슈튀페 지음
바오로딸 | 192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열여덟 가지의 어려움과 열여덟 가지의 위로가 되는 약에 대해 안셀름 그륀과 안스가르 슈튀페가 공감과 대화를 하며, 열린 처방을 전하는 책이다. 안셀름 그륀은 성경의 치유력과 심리적 관점에, 안스가르 슈튀페는 의사이자 수도자로서 자신의 풍부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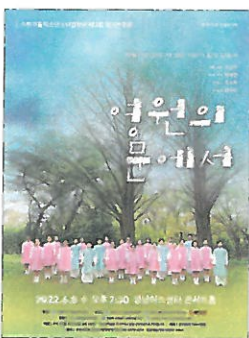


신간

사하라의 불꽃

샤를 드 푸코 지음
바오로딸 | 340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샤를 드 푸코가 남긴 복음 묵상, 편지, 피정 노트에서 발췌한 단편적인 글들을 트라피스트 수사, 성클라라수도회의 잡역부, 그리고 사제, 사하라의 은둔자로 머문 삶의 순서에 따라 엮은 책이다.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열정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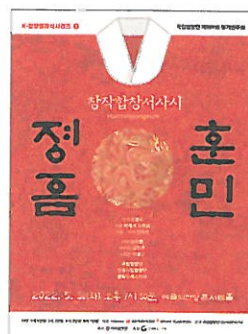


연주회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창단 5주년 기념 제3회 정기연주회 영원의 문에서

입장료: R석 1만원, S석 5천원, A석 3천원
문의: 070-8879-1004 수원가톨릭소년소녀
합창단 단무장, 02)581-5404 영음예술기획
티켓 예매: 1544-1555 인터파크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6월 8일(수) 19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있다. '영원의 문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한국 천주교의 위령기도(연도)를 아이들의 소리로 들려주고자 한다. 판매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자금으로 기부된다.



연주회

국립합창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훈민정음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예술의전당: 02)580-1300
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제189회 정기연주회 창작합창서사시 <훈민정음>이 오는 5월 31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한글 창제 과정과 반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서와 합창·국악의 융합을 통한 짜임새 있고 완성도 높은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제2230(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예비신자 입교식 : 6월 5일(주일) 11시 미사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6월 8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7월 10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 여성을뜨레아

일시: 5월 24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 5월 27일(금) 10시 미사 후

◎ 초등부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5월 28일(토)

장소: 월드컵공원

문의: 초등부교감 (010-5377-8909)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중고등부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5월 29일(주일)

장소: 명지전문대 운동장

문의: 중고등부교감 (010-2517-3614)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6월 4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6월 5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청년 에니어그램 일일피정

에니어그램 테스트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나와 타인 속에서 발견하는 피정

대상: 연회동성당에서 활동중인 20~30대 청년

일시: 6월 12일(주일) 오후 1시~6시

참가비: 15,000원

신청 & 문의: 청년회장 (010-5125-8040)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오늘은 현미현금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5. 1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6	784 (37.4)	724 (34.5)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32,337,1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김동영 바오로 상가 오십만원

고 김해룡 요아킴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5월 9일~15일)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김인기 오만원 김성태 오만원

김종민 오만원 김건민 오만원

김혜순 삼십만원 유호선 오만원

서미경 이십만원 송명자 일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이계동 이십만원

이윤희 이십만원 김정자 오만원

박명숙 오만원 송명순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부활 제5주일)

교무금 8,407,000원

주일헌금 5,255,700원

청소년주일 2차헌금 1,857,000원

입당	144	봉헌	219, 211	성체	172, 501, 163	파견	136
----	-----	----	----------	----	---------------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